

“베드로 키베(岐部)와 187순교자”의 시복식을 맞이하며 (일본 가톨릭 교회의 현황)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 마리아 병원 이사장

† 주의 평안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여러분 건강히 잘 계셨는지요?

저희 병원이 있는 큐슈의 후쿠오카현은 보통 7월 하순에 장마가 끝나는데, 올해는 7월초에 장마가 끝나 연일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7월 초순에는, 북해도의 토야코 [洞爺湖(とうやこ)]에서 세계정상회의(Summit)가 개최되어 지구 온난화 대책 문제, 고유가 문제, 식량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되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결정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나 버렸습니다. 세계의 빈곤과 환경 문제에 대한 NGO와 주요 종교 관계자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였지만, 미디어에서는 작은 기사로만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세계정상회의(Summit)에 대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인적 존엄’에 근거하며 우리들의 활동 중심에 있어야 할 가톨릭적 정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정상회의(Summit)후에 한층 더 불투명해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 일까요?

한편, 저희 일본의 가톨릭 교회는 이번에 하느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해 11월 24일, 큐슈 나가사키에서 “베드로 키베(岐部)와 187순교자”의 시복식이 거행됩니다.

일본의 가톨릭 교회는 1549년 8월 15일 예수회 소속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큐슈의 가고시마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시고, 약 460년의 긴 세월이 흘러 오늘 날에 이르는 동안, 가톨릭 선교 활동 금지, 가톨릭 신자에 대한 고문, 그리고 많은 신자들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작가 遠藤周作(えんどうしゅうさく) (엔도우 슈우사쿠 - 가톨릭 신자)의 저서 『침묵』은 일본 가톨릭 신자들의 깊은 신앙에 대해 상세하게 보여준 서적입니다.

현재 일본 가톨릭 교회의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현재 일본 가톨릭 교회는 전국의 지역을 16개 교구로 나누고, 각 교구 아래 799개의 소교구로 나누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수는 주교, 사제, 부제를 합한 성직자가 1,591명, 수녀 6,290명, 수사 201명, 신학생 196명, 평신도 444,293명으로 총 452,571명입니다.

일본 가톨릭 교회의 조직은 ‘가톨릭 중앙협의회’를 동경에 설치하여, 일본 가톨릭 주교협의회에서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경에는 로마 교황청 대사관, 그리고 16개 교구에 주교관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남자 수도회 본부가 47개, 여자 수도회 본부는 100개입니다. 주교관과 각 지역의 교회, 수도회 본부가 중심이 되어, 가톨릭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의 방법은 종교법인 또는 학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로의 인구 변화, 경제 침체 등은 교육과 의료, 복지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가톨릭 교회도 성직자의 고령화 그리고 활동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법인으로써 교육, 의료, 복지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과 활동 거점에 대해 말씀 드리면, 각 지역의 교회(공소 포함)가 1,009개소, 교육 기관으로 단기대학 및 대학이 48개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172개교, 유치원은 543개소입니다.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은, 고령자를 입소시키는 노인 보건의료·진료소·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이 100곳, 신체장애자 및 정신 장애자 수용 시설 등은 146개소입니다. 0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27개가 있습니다. 이밖에 선교 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이 331개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약 8,000명의 수도 성직자와 일부의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활동 내용은 가톨릭 신자 총 수(약44만 명)에 비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로의 인구 변화, 경제 침체 등은 교육과 의료, 복지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가톨릭 교회도 성직자의 고령화 그리고 활동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 가톨릭 교회는 주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의 재 구축, 성직자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의 확대를 위한 대책, 글로벌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4일에 개최되는 시복식에는 약 2만 명 내외의 가톨릭 신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시복식 개최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해 주시기로 허락 해 주셨기에, 저희 성마리아 병원 의료진과 일본 가톨릭 의사회, 일본 가톨릭 간호협회가 합동 팀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가톨릭 정신인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는 공동 활동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날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베드로 키베(岐部)와 187순교자” 시복식을 통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활동에 대해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여러분께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2008년 7월 20일

한·일 교류의 광장

ペトロ岐部と187殉教者の列聖列福式を迎えるに際して (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

2008年7月20日 医療法人 雪ノ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 主の平安

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皆様お元気でお過ごしのことと存じます。

私どもの病院があります九州の福岡県は例年7月下旬に梅雨が明けますが、今年は7月初めに梅雨が明け連日猛暑の日々となっております。地球温暖化に伴う異常気象の影響かと思われまます。

7月上旬には、北海道の洞爺湖でサミットが開催され、地球温暖化対策問題、原油高騰問題、食糧問題等について議論されましたが、何らの対策も決議されず先送りの結果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世界の貧困、環境問題に対するNGO関係団体の会議また主要な宗教関係者の会議も同時に開催されましたが、メディアとしては小さな記事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だけでした。私がこのサミットについて危惧したことは、私どもの活動の中心であるカトリックの「すべての人の尊厳」に基づく議論、協議がなされなかったことであります。サミット後の世界の政治・経済の混乱、より一層の不透明化の責任は、誰が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さて、今年の日本のカトリックは、神様の大きな恵みを受けることとなります。本年11月24日に九州の長崎で「ペテロ岐部と187殉教者」の列福式が執り行われます。日本におけるカトリックは、1549年8月15日に九州の鹿児島にイエズス会所属の神父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が上陸し、布教活動を開始し現在に至っております。約460年の長き月日が経過していることとなります。その間、カトリックの布教に対する禁制、カトリック信者に対する拷問、また殉教等歴史的に翻弄され続けました。韓国の皆様方もよくご存知のカトリック信者で作家の遠藤 周 作の著書「沈黙」は、日本のカトリック信者の信仰を内外に示した書物であります。

ところで、現在の日本のカトリックの現状を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資料が若干古いですが2006年12月現在の日本のカトリックは、日本全土の地域を16の教区で区分されております。また、各教区の下に799の小教区が配置されています。これらの教区の信者の合計は、司教・司祭・助祭の合計が1591名、修道女の合計が6290名、修道士の合計が201名、神学生の合計が196名、信徒の合計が444、293名の総計452、571名となっております。

組織であります。東京に「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が設置され、日本カトリック司教協議会にて種々の日本のカトリックの事項について決定されております。東京にローマ教皇庁大使館、また16の教区に司教館が設置されています。男子修道会等の本部数は、47で、女子修道会等の本部数は、100となっております。これらの司教館、各地域の教会、修道会本部が中心になり、カトリックの布教、宣教を行い、布教、宣教の方法として宗教法人あるいは学校法人として教育、医療、福祉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

具体的な施設及び活動の拠点ですが、教会（巡回を含む）の総数は、1009ヶ所、教育機関としての短期大学及び大学の総数は48校、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総数は172校、幼稚園の総数は543施設となっております。医療及び福祉施設ですが、高齢者を入所させる老人保健施設・診療所・病院も含めた医療施設の総数は100施設、身体障害・精神障害等の収容施設の総数は146施設となっております。0才から小学校入学以前を対象とした乳幼児入所施設の保育所は、127施設となっております。その他の宣教等の活動の拠点施設が331施設となっております。これらの施設の運営は約8000名の聖職者、信徒の一部の方々により行われております。カトリック信者総数が44万人に対する活動内容としては、高い評価を得ていると思われまます。

しかしながら、近年の急激な少子・高齢社会への移行は、総人口の現状、経済の低迷による教育、医療、福祉の改革を余儀なくされております。同様に日本のカトリックも聖職者の高齢化また活動事業対象者の減少を来し、運営の存続すら危ぶまれる状態となっております。今後の日本におけるカトリックの課題は、司教協議会を中心とした組織の再構築、聖職者を含めたカトリック信者の拡大対策、グローバル化等への積極的な対応が必要と思われまます。

11月24日に開催されます列聖・列福式には約2万人の内外のカトリック信者の方々の参加が予定されております。式典開催に際しましては、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皆様方の暖かいご協力により医療スタッフの派遣をご許可して頂き、私どもの聖マリア病院医療関係スタッフ、また日本カトリック医師会、日本カトリック看護協会の合同のチームを編成することが可能となりました。カトリックの「人間の尊厳」を示す共同の活動の場を、神様がお与え下さったことと信じております。「ペテロ岐部と187殉教者列聖・列福式」により神様の新たな恵みを受け、私どもの今後の活動の確認を行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皆様方への神様の豊かなお恵みをお祈りしつつ、今後のご協力の程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神に感謝